

▶ 일본의 과학기술청부속 연구기관인 금속재료기술연구소



## 日本 見聞記 <Ⅶ>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청 장관도 국무대신이기에 각하(閣下)라고 불리운다. 1956년 발족한 일본 과학기술청은 역대 장관중 6명이 수상에 오른 것을 보면 비록 성(省)은 아니지만 비중있는 행정기구로 육성해가고 있다. 장관(大臣)을 각하(閣下)라고 부르면서 수족같이 부려먹는 일본 관료주의의 실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장관자리를 우러러 볼만한 존귀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다이진'(大臣)은 출세의 상징이고 우러러 보는 존귀한 벼슬이다.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청장관도 '고쿠무다이진'(國務大臣)이기에 '가카'(閣下)라고 불리운다. 그 덕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청장관도 일본에 가면 '가카'라고 불리우며 융숭하게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너무 민주화가 된 탓인지 노소도 가리려하지 않고 상하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사회 풍조에 젖은 눈으로 보면 오히려 기이한 느낌을 받기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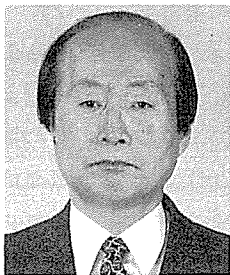
### 확고한 천황제와 관료제

일본은 엄연히 민주주의의 국가다. 각 방면이 크게 민주화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어 세계에서조차 살기에 안전한 나라로 손꼽힌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요소도 아주 많이 지니고 있어 민주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국민의 천황가에 대한 높은 존중도는 상상을 넘을 정도다. 관료제도의 확고한 확립은 전전(戰前) 군국시대의 연장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할 정도다.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한 완고한 차별은 민주주의로도 못 풀고 있다. 대신을 각하라고 부르는 것도 천황제나 관료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천황에 대한 존중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체험으로 실감한 일이 있었다. 언젠가 도쿄(東京) 우에노(上野)공원에 있는 「니혼가쿠시인(日本學士院)」으로 자료를 얻으러 갔었다. 그곳은 학술상으로 공적이 현저한 1백50명의 과학자(자연, 인문)를 우대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으로 1906년에 설립됐다. 정문에서 경비가 체크같은 것도 하지 않아 사무국까지 들어가 자료를 받고 나오는데, 2층 계단을 고인이 된 '오히라(大平)' 당시 수상이 올라오더니 그를 선두로 줄을 짓고는 누구를 맞을 때 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나도 걸음을 멈추고 누가 오나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내려다 보았더니 고인이 된 ‘쇼와’(昭和)천황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천황이 다가오자 몸을 90도로 굽히고 정말로 황송해서 어쩔줄 모르겠다는듯 벌벌 떨다시피 공손을 표하는 일본 최고의 권력자를 눈 앞에 보고 감명보다는 오히려 쇼크를 받았다. 천황과 수상과의 악수같은 것은 없었다.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존송되는 천황이 학자들의 행사에 수상과 함께 참석을 하여 격려를 해주니 사기양양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고(故) ‘쇼와’ 천황이나 현재의 천황이 모두 생물학자로서 과학에 관심이 깊어 과학기술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카’라는 존칭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대신들이 각 성청(省廳)에 미치는 실무적인 영향력은 별반 크지 않다.

### 역대장관중 6명이 수상에 올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처는 금년에 발족 30주년을 맞는데 대해 일본의 과학기술청은 금년에 발족 41주년을 맞는다.

일본의 과학기술청이 발족한 1956년은 구소련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가 발사되기 1년 전이고, 컴퓨터가 실용화의 길로 들어서서 몇년이 지난 뒤며 단백질과 인슐린의 분자구조가 결정되고 유전자의 본체인 DNA의 구조도 밝혀진지 얼마 안되는 시기였다.

세계가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시대로 돌입하려는 기운을 잡아 총리부에 과학기술행정기구를 설치했던 셈이다. 성(省)은 아니지만

국무대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학기술청을 무게있는 행정기구로 육성하는 국가의 의지는 초기 장관들의 면모에서 읽을 수 있다.

초대 장관은 1천만부라는 일본 최대의 부수를 내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사주였던 ‘쇼리키(正力松太郎)’씨였는데 그는 5대 장관이기도 했다. 2대 장관은 후에 수상이 된 ‘이시바시’(石橋湛山)씨였다. 그 뒤 장관을 거쳐 수상이 된 인물을 열거해 보면, 6대와 12대의 ‘미키(三木武夫)’씨, 9대와 28대의 ‘나카소네’(中曾根康弘)씨, 14대의 ‘사토(佐藤榮作)씨, 15대의 ‘이케다’(池田勇人)씨, 34대의 ‘우노’(宇野宗佑)씨. 실로 6명의 수상이 과학기술청장관을 거쳤는데 두명은 2번이나 거쳤다. 한명은 여당의 간사장이 되기도 했으며 거의가 여당 주류파의 중진이 그 자리에서 일을 했다.

1977년 5월에 내가 주일한국대사관 과학관으로 부임했을 당시의 과학기술청장관은 후에 수상이 된 ‘우노소스케’(宇野宗佑)씨였다. 마침 부임한 뒤 곧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가 개최되게 됨에 따라 당시 최형섭과기처장관(현 과총회장)이 방일하셨다. 본회의 종료뒤 아카사카의 유명한 요정에서 우노장관 초대 연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우노장관은 아리랑, 양산도 등을 하모니카로 멋들어지게 불어주었고 흥겨운 분위기에 놀려 최장관님은 전례없이 노래를 부르시 않을 수 없었다.

### 거물급 장관 예산확보도 수월

‘나카소네’ 장관 등 특히 과학기

술정책에 관심이 있고 활동적인 인물은 특별연구축진조정비같은 것을 예산항목으로 신설하기도 했지만 대개의 장관은 시행돼온 정책을 무난히 밀고 나가거나 대외적인 얼굴노릇을 했다. 수상이 된 정도의 거물이 앉아 있으면 그것만으로 대장성(大藏省)같은데 압력이 돼 예산이 증가되기도 했을 것이다.

주일과학관은 주로 동청 진흥국 국제과를 카운터파트로 삼아 일을 했다. 그러나 원자력문제는 원자력국의 조사국제협력과, 우주문제는 연구조정국의 우주국제과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협의하곤 했다. 공식적인 과학기술장관회의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의 과기청 방문, 주일한국대사의 과기청 장관 방문 등의 경우는 국제과가 창구가 된다.

그런데 이쪽은 국장급인데 우선 업무협의를 국제과의 사무관급 담당관을 상대로 시작하게 돼 있다. 이 사무관은 운수성이나 후생성 등에서 파견돼 2년 정도 일하고는 되돌아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력이나 일습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과기처장관 또는 주일한국대사가 그쪽 과기청장관을 방문할때 협의할 내용을 이 사람들하고 확정해놓으면 양측이 대면할 때 이쪽과는 달리 그쪽에선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외워대는 것이었다. 대신들을 ‘가카’로 올려부르면서 수족같이 부러먹는 관료제도의 실체를 거기서 본 것이었다. ㉞